교육 과정 소개서.

[오프라인] FDE Academy 8 Week : AI Applied Engineer Track

Fast campus

강의 정보

강의명	FDE Academy 8 Week : AI Applied Engineer Track
기간	2026.10.10(토) ~ 2026.11.28(토)
일정	매주 토요일 회차별 시간 상이 (총 29시간) - 1~3주차(공통): 10:00~13:00 - 4~7주차(A Track): 09:00~13:00 - 8주차(공통): 14:00~18:00
장소	패스트캠퍼스 강남 강의장 (강남역 4번 출구, 미왕빌딩)
준비물	개인 노트북, Claude Code Max 플랜, GitHub, LLM API 사용 환경: OpenAI API 등, ChatGPT Pro 플랜
문의	고객센터

수강 신청 안내

결제가 완료된 뒤, 패스트캠퍼스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내 강의 보기**를 통해 강의의 등록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신 수강생 분들께는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강일 전 각각 메일과 문자를 통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사전에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 수정을 통해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강의 목표

고객 환경의 제약을 설계 입력값으로 삼아, 1~3주차 MVP를 실제 적용 가능한 AI Agent로 고도화하고, Eval Suite로 품질을 증명하며, 업무 시스템 연동과 배포, 운영 이관까지 학습합니다.

강의 정보

8주간 진행되는 약 45시간의 오프라인 과정으로, 공통 과정과 AI 기술 구현·비즈니스 전략 트랙별 전문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강사 소개

전현준

· 현) AI Engineer
· 전) 핀테크 스타트업 CTO
· 전) Kakao Pay Data Engineer
· B2B AI 엔지니어링: 폐쇄망 환경의 고객사에 Agent 시스템을 설계·개발·배포까지 수행
· 국내 대기업 S사, K사 등 다수의 기업에서 AI RAG, Agent, Agentic AI 현직자 대상 중-고급 강의 강사
· 티타임즈 바이브코딩 컨퍼런스 "바이브코딩으로 만드는 AI Agent" 연사
· Google DevFest Songdo 컨퍼런스 "LLM DR 시스템 Hands-on" 연사

안녕하세요, 전현준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과 고객사 환경에 정착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업에서는 기술의 우아함보다, 어떻게든 답을 찾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준입니다. Applied AI 영역에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늘 현장의 제약안에서 내가 만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가 질문과 마주합니다.
어떤 구조가 지금 이 고객사 환경에 맞는가? 어디까지 워크플로우로 두고, 어디부터 에이전트에 넘길 것인가?
성능과 비용,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잡을 것인가?
Applied AI FDE의 역할은 좋아 보이는 기술을 AI와 함께 대충 만들어서 제공하는게 아니라, 현장에 맞는 형태로 이론과 결합된 기술을 다듬어서 넣는 일입니다.

이 트랙은 단순한 프로토타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부터 Eval, 시스템 연동, 배포와 운영 이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다룹니다.
'에이전트를 잘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환경에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고민합니다.

강사 소개

황현태

- 현) 스페이스와이(SpaceY) 대표 겸 Lead FDE
- 현) 개발자 - 기업 매칭 플랫폼 DIO(디오) 운영
- 전) 헤움랩스 공동창업
- 전) 연세대학교 학사, 박사 (AI 모델 안정성 분야)
- LG전자, 키움증권, SKT, CJ, 보험사, 각종 제조사 대기업
- 제조사, 금융권 대상 엔터프라이즈 AX 프로젝트/컨설팅 수행
- 실무자 업무 자동화부터 의사 결정자를 위한 인사이트 AI까지

안녕하세요. 엔터프라이즈 AX 기업 스페이스와이 대표이자 Lead FDE 황현태입니다.
스페이스와이는 한국에서 FDE 모션을 최초로 시도하면서, 리즈닝 모델 혁신 이후에 엔터프라이즈 AX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프라이즈의 4세대 AX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FDE는 모호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낙관적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문제는 모호하고, 고객의 기대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모든 압박을 견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정 기술'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엔지니어링으로 풀지 않고
비즈니스의 맥락을 이해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마인드셋과 프레임워크도 중요합니다.
경험으로 쌓았던 FDE의 스킬셋을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커리큘럼

1주차
Role & Operatin Model : FDE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가?

[주제] K-FDE의 정의와 업무 루프
- FDE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 4분면 비교 — SI / 컨설팅 / 사내 AI TF / FDE
- FDE Loop — Discover → Define → Build → Prove → Deploy → Embed(내재화)
- 왜 지금인가 — 글로벌 머니 시그널 & 국내 확산

[주제] 안티패턴 먼저 배우기
- KPI 사슬 — 전사 → 본부 → 팀 → 개인 업무 → AI 개입 지점
- AI를 앱이 아니라 컴퓨터로 볼 것 — 범용 슈퍼 에이전트를 왜 두고 만드는가
- 실무자와 리더의 AX Goal : 업무 자동화 vs 인사이트
- 횡적 확장 vs 종적 연결 — 실무·보고·의사결정을 하나의 버티컬 워크플로우로
- Work Slop — AI 산출물이 오히려 조직 신뢰를 깎는 방식과 방지 장치

[주제] FDE 운영 규칙
- 타임박싱과 진입 기준 — '모든 걸 해결해주는 외주팀' 방지
- 2~3인 팟 — 엔지니어 1~2 + 프로그램 매니저(+설계자)
- 인수인계를 전제로 설계 — 고객이 다음 문제를 스스로 푸는 것
- 계약서에 '내재화 태스크'를 반드시 하나 넣는다

[주제] FDE 제약 3종
- 보안 — 망분리·폐쇄망, 모델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가 먼저
- 품의·결재 문화와 예산 시즌 — 기술이 아니라 승인 비용이 일정을 결정
- 레거시 환경 — 연동 지점이 아키텍처보다 먼저 범위를 자른다
- 제약은 나중에 발견하는 리스크가 아니라 설계 입력값

[실습]
- 미팅 녹음 파일 기반으로 제안서와 프로토타입 제작
- 킥오프 녹음 1개 제공 — 틀린 요구·실무자가 흘린 단서·제약·모순
- 결과물 — FDE Project Charter

커리큘럼

2주차 Problem Discovery : 회사를 읽고 문제를 잘라낸다

[주제] Business Context 읽기
- 3층 구조로 회사 읽기 — 산업 구조 → 손익 구조(P&L) → 업무 구조
- Data & Permission Landscape — 데이터 위치와 승인 경로
- Stakeholder Map + Decision Rights — 승인·거부권·예산의 주체

[주제] 암묵지 Discovery
- 기업 업무의 절반은 ERP 밖에 있다 — 잔가지 업무, 엑셀·PPT 속 노하우
- 수집 4법 — 업무 섀도잉·산출물 역추적·Input Prompt Logging·에이전틱 워크 로그
- 금지 질문 — "AI로 뭘 하고 싶으세요?", 요구사항 받아적기, 기능 리스트 확인
- 수집한 암묵지를 Context Graph로 남긴다 — 기술이 바뀌어도 남는 회사의 자산

[주제] 적정 기술 판단
- 이건 LLM Problem인가부터 가른다
- AI로 굳이 풀지 않아도 된다 — 규칙 기반·스크립트·기존 시스템 개선·프로세스 재설계
- 적정 기술 판단표 — 문제 유형 × 정확도 요구 × 데이터 가용성 × 유지보수 부담
- 우선순위 4축 — Value × Feasibility × Data Availability × Approval Cost
- No-go 조건 명문화 — 규제·오답 비용·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LLM Problem이 아님

[주제] 이해관계자 정렬
- 청중별 질문 — 경영진 P&L과 책임 / 본부장 KPI와 팀 부담 / 정보보안 데이터 경로와 로그 / 현업 내 일이 없어지나
- 꼭짓점 AX — 전 직원 교육이 아니라 리더의 도구를 바꿔야 암묵지가 흐른다
- 사내 조력자를 세운다 —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현장에서 성과가 안 난다
- 목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밸류업 — 직군을 통째로 없애는 건 도박
- Pre-wiring — 반대자는 회의장이 아니라 회의 전에 관리한다

[실습]
- 스키마가 없는 DB table, 맥락 적은 엑셀·PPT 파일 일부를 기반으로 데이터 플랫폼 구축
- FK도 문서도 없는 덤프, 병합 셀 엑셀 제공
- 결과물 — Problem Brief + 데이터 플랫폼

커리큘럼

3주차 Build, Eval & Handover : 만들고, 반박하고 넘긴다

[주제] Build the Agent or Power the Agent
- 판단을 가르는 네 가지 질문 — 고객의 업무 위치·워크플로우 소유 범위·가치의 위치·한 앱 안에서 끝나는가
- Build가 유리한 경우 — 규제·통제·복잡한 판단·긴 멀티스텝이 한 제품 안에서 이루어질 때
- Power가 유리한 경우 — 여러 도구와 조합되는 단일 기능일 때
- 구현 형태 4종 선택 기준표 — 프롬프트 / 워크플로우 / RAG / 에이전트

[주제] Rapid MVP
- AI 코딩 도구로 검증용 MVP 세우기 — Claude Code / Codex
- 스코프 — 1개 업무, 1명 사용자, 1주일치 데이터
- 합성·비식별 데이터 생성 — 사내 데이터 반출 문제를 우회
- 데모용과 검증용의 차이 — 데모는 박수를 받고, 검증은 예산을 받는다
- 생산성 100배는 리스크 100배 — 운영 맥락을 확인하지 않으면 빨리 만든 것이 그대로 부채가 된다

[주제] Eval 3원칙
- ① 인프라부터 만들지 않는다 — 실제 트레이스를 직접 열어 실패 유형부터 분류
- ② Pass/Fail로 딱 자른다 — 세부가 필요하면 Pass/Fail을 여러 개로 쪼갠다
- ③ 커스텀 메트릭으로 간다 — 실제로 터지는 실패를 기준으로 만든다
- 도구는 그 다음에 붙인다 — Ragas 실습
- RAG 파이프라인은 검색 실패와 생성 실패를 분리해 측정하고 CI에 붙여 회귀 검증

[주제] 운영 이관과 내재화
- FDE의 최종 목표 — 다시는 우리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고객사 안에 메인테이너를 키워놓고 나오는 것
- 역할 5유형 — 프로토타이퍼·빌더·스위퍼·그로어·메인테이너
- AX 지표 — 토큰 사용량이 아니라 결과물 증가량·실제 처리된 업무량·의사결정 속도와 조직 병목
- Runbook·모니터링·비용 계획·인수인계 세션 설계, 마지막에 Backlog를 붙인다

[실습]
- RAGAS 세팅
- 결과물 — 검증용 MVP + Eval Baseline Report + Handover Draft + Backlog

커리큘럼

4주차 [A Track] ARCHITECT : 고객 환경 안에서 AI 시스템을 설계한다

[주제] 고객 환경의 제약사항이 우리가 만들 AI 시스템 설계의 초기 입력값
- 데모와 운영은 다르다 — MVP를 실제 적용 시스템으로 올리기 전 확인할 것
- 고객 환경 읽기 — 망분리/폐쇄망, 데이터 위치와 반출, 승인 경로, 레거시 연동 지점

[주제] 구현 형태 선택 (워크플로우 / 에이전트)
- Workflow와 Agent의 경계: 자율성이 필요한 곳과 결정론이 필요한 곳 구분

[주제] 에이전트 아키텍처 설계
- 컨텍스트/프롬프트 설계, 도구 설계, 멀티에이전트 다루기
- Data Flow와 Data Contract

5주차 [A Track] BUILD & EVAL : 고도화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증명한다

[주제] MVP 고도화
- AI 코딩 도구로 MVP 개선 사이클 반복
- HITL 설계 및 사람이 검토/승인하는 Dashboard 만들기

[주제] Eval Suite 설계
- AI 시스템 평가: Golden Dataset, LLM-as-a-Judge 및 요구사항 기반 커스텀 메트릭
- Failure Taxonomy: 트레이스에서 실제 실패 유형을 읽고 분류한다
- 회귀 검증: 프롬프트/모델/구조 변경 시 품질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주제] 비용과 성능의 트레이드오프
- 동작 MVP + Eval Suite + Failure Taxonomy + 비용 프로파일

커리큘럼

6주차 [A Track] INTEGRATE & OPERATE : 연동하고, 배포하고, 넘긴다	[주제] 업무 시스템 연동 API, MCP 등 도구 연동: 기존 레거시 업무 시스템에과 AI 시스템 연동 방법 보안과 감사에 대응하기: 권한, 로그, 감사 증적 [주제] AI 시스템 운영 설계 온라인 평가: 트레이스 기반 샘플링(성공/실패/저신뢰/고비용) Runbook, 모니터링 체계, 비용 계획 [주제] 배포 전략과 운영 이관 파일럿 대상 선정, 단계 확산,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7주차 Incident Week	[주제] Incident Week - 당일 공개 예정

수강 환경

패스트캠퍼스 강남강의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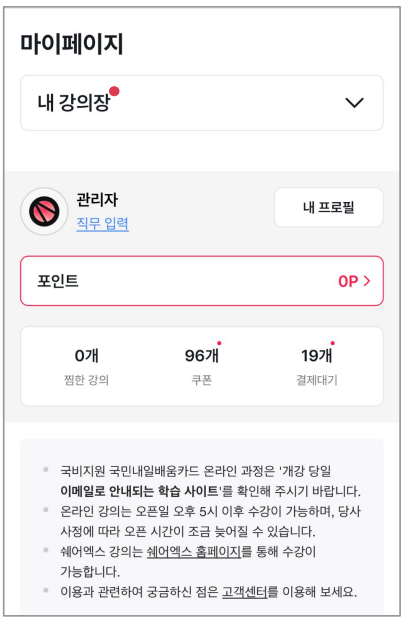
- ❖ 강의에 따라 강의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개강 전,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강의 장소 및 세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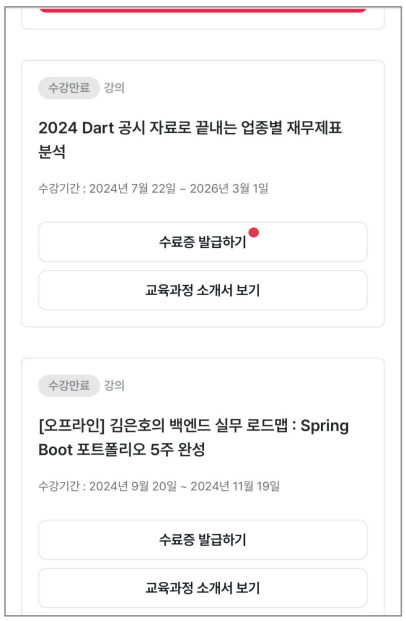
주의사항

- 상황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할인이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강생의 결석이나 지각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강의가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아래 규정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수강료를 환불해드립니다. (모집된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강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및 건강 상의 이유/천재지변 등)
- 별도의 주의사항은 각 강의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방법

- 패스트캠퍼스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강의 종강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내 강의장 > 수강 완료 필터를 선택합니다.
- 해당 강의의 [수료증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

- 형태에 따라 환불 규정이 상이 하므로 반드시 각 강의 상세페이지 하단 [환불 규정]과 [패스트캠퍼스 취소/환불 정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패스트캠퍼스 취소/환불 정책 바로가기